

송화자 명인, 가야금산조 보유자 인정

전북도 무형문화재... 남원지역 음악양식 계승·후학 양성 매진·전수활동 기여도 탁월

남원시는 제성가야금회 대표인 송화자(宋花子, 여, 1958년생, 전북 남원시) 명인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김죽파류) 보유자로 인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송화자 명인은 7월 8일 전라북도로부터 전승 능력과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가 탁월한 점을 인정받아 30일 간의 인정 예고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선정됐다.

동편제 판소리 가문에서 태어나 증조부 박만조, 외할아버지 박봉술, 어머니 박정례에게 한국의 민속음악을 배운 송화자 명인은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게 가야금에 입문, 국악고, 대학, 대학원에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를 학습하게 됐다.

특히 그녀는 가야금산조의 시원으로 일컫는 악성(樂聲) 김창조의 손녀 김죽파 선생 문하에 입문, 지난 40여년 동안 민속음악 중 기악 독주곡인 가야금산조를 학습하고 남원지역 음악 양식을 옹골케 계승해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송 명인은 국립국악고와 추계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주대시습 참방, 우륵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령상, 남원 시민의장 문화장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소리의 고장 남원에서 새로운 가야금산조 보유자가 인정된 것 그 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가야금 계



제성가야금회 대표인 송화자(宋花子, 여, 1958년생, 전북 남원시) 명인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김죽파류) 보유자로 인정됐다.

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보람과

공지를 가지고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관련 전승기반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서예대전’ 송신자씨 대상 수상

묵연-문인화 작품

제33회 전북서예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에 송신자씨의 작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한국서예협회전라북도지회(지회장 정영숙)에서 개최한 이번 서예대전에는 총 315점이 출품, 이 가운데 대상 1점, 우수상 4점, 삼체특선 13점, 삼체입선 7점, 특선 36점, 입선 70점 등 총 171점을 뽑았다.



대상에는 송신자(1954년생, 부안)씨의 ‘묵연-문인화’, 우수상에는 강성안(1951년생, 장수)씨의 ‘망천문산(이백 시-해서)’, 김상선(1957년생, 정읍)씨의 ‘취고담검소 구-예서’, 류미경(1969년생, 익산)씨의 ‘풀꽃-한글’, 최삼임(1953년생, 전주)씨의 ‘매독일본 호화-전서’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9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9월 24~29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된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2·3하미술관, 지역 작가지원 2차 전시 개막

정읍시(정읍시립미술관)가 운영하는 2·3하미술관이 지난 10일부터 지역 작가지원 전시를 선보이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3하미술관은 컨테이너에 유리틀 설치해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만들어진 작은 미술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지난 5월 1차 전시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이준사진연구소와 김용련 작가, 노준철 작가의 작품 21점을 만나볼 수 있다.

신태인 미술관에서는 이준사진연구소의 ‘의식의 흐름과 세상의 참과 거짓’전이 열린다. 이준사진연구소는 스트레이트 사진의 분류를 이어받아 ‘세상에 있는 그대로’ 꾸밈없는 순수

사진을 탐구하는 연구소다. 전시회에서는 순간의 포착에서부터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감정을 순수하게 표현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연지 미술관에서는 김용련 작가의 ‘마을세상’전이 진행된다. 김용련 작가는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을 모티브로 표현한 입체 작품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성동에 마련된 노준철 작가의 ‘사진으로 만나는 태산선비문화’전은 무성서원을 비롯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본 우리 고장의 문화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30일까지 휴관일 없이 진행되며 신태인읍, 연지동, 수성동 3개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느리고 시시해도 1의 가능성에 용기를”

홍시연 첫 개인전 ‘누구나의 오늘’ 전주 진북생활문화센터 전시공간 소소서 23일까지 개최

홍시연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누구나의 오늘’이 전주 진북생활문화센터 전시공간 소소서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고교시절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부모의 격심한 반대로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었으나 공대 산업디자인학과에 입학했다. 졸업하면서는 어찌된 일인지 대학의 학제개편으로 미술대학 졸업장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그림에 대한 열망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배우고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화 수채화 문인화 파스텔 펜화 캘리그래피 POP까지 가리지 않았다. 직장이며 생활문제로 긴밀적이지만 학생시절까지 합치면 십 년이 넘는 세월이다. 민화에 이르러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거기 담긴 민중의 해학과 엄격하지 않은 느슨함이 매력적이라고 한다. 수묵화에 드리운 검은 먹의 압도적인 지배가 무거웠기에 민화에서는 흰색인 호분을 많이 섞어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그림에 담으려고

한다. 개인전을 맞이해, 어떤 소망과 간절함을 가진 누군가도 이런 날이 ‘누구나의 오늘’이 당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고작 1이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0과는 아주 다른 선택이다. 느리고 시시해도 1의 가능성에 용기를 내 본다”고 작가는 말한다. 무기력이든 절망감이든 아무 것도 못하고 웅크린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고 한다.

전라북도 미술대전과 전국벽화미술대전에서 몇 차례 입상하고 몇 번의 동인전에 참여하고 회화단체 라벤더가든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북생활문화센터 전시공간 소소는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를 위해 아마추어 작가와 전문예술인에게 공간을 열어놓고 있다.

한편, 홍시연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누구나의 오늘’은 23일까지 열린다.

/김재훈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9월 2일 ‘추억의 동춘 서커스’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9월 2일 오후 7시 30분 명불허전 명품공연 ‘추억의 동춘 서커스’가 개최된다.

1925년 창단된 역사와 전통에 자존심을 건 한편의 명불허전 명품공연 관람객들에게 폭소와 감동, 스텔을 연출한 서커스 공연이다.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 위주의 서커스에 예술성을 가미한 현대서커스로 기계체조, 곡예 무용, 미술,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장르의 공연

이다. 아크로바트인 공중실크, 모자를 던지며 여러 가지 저글링을 선보이고, 수십개의 훌라후프 돌리기, 얼굴의 가면과 웃이 순식간에 교체되는 변검변복, 폐어로 가 선보이는 마술, 공중수직 줄타기, 농구공 묘기, 서커스 발레 등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관람권 예매는 23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